



## 창립 37주년 기념식 개최

### “조선업 무한경쟁 시대, 새해의 초심을 열정과 도전으로 승화시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선보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의 꿈과 희망을 안고 출발했던 계묘년이 어느덧 무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7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 약재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임직원 및 협력사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보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회사는 창립 3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모달 유니트 선두기업에서 친환경 그린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지난 37년간의 발자취를 돌이켜 보면 끊임 없는 도전의 기록이었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고비 속에서 선보가족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정신이 이루어낸 성과이기에 회사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보가족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우리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퇴장과 한화오션의 출범, 인재 영입 경쟁, 자체 생산설계 인력양성과 제작업체의 다변화 움직임 등 우리의 모기업이라 할 수 있는 조선 3사에서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은 모기업과 협력사 간의 전통적인 우호 협력 관계에서 무한 경쟁 관계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선보가족 여러분!

오늘 뜻깊은 창립 37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처한 냉엄한 현실을 돌아보고 새롭게 도약하기를 기대하면서 선보가족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친환경 그린에너지 솔루션 기업이 선보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연구인력 확충, 대불공장 설립, 가스저장시설 증설 등 신성장사업 준비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있고, 암모니아/LPG 재액화 시스템 및 CO2 포

집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제주풍력발전단지 그린수소 개발사업 및 한수원의 수전해 수소 생산 실증사업 등에 참여 중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마중물이 되어 친환경 그린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LET'S GO 2025 실행력 강화”입니다.**

우리는 2025년을 목표로 ▲명품모듈 신적차 ▲FGSS 성장가속 ▲기술사업화 신성장동력 ▲가치공유 지속가능경영이라는 4대 테마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의 절반이 지난 현재, 우리의 성적표는 어떠한지 스스로 반문해 봅시다. 각 부서장은 강력한 실행 의지를 가지고 리더십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고, 소속 직원들은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2025 경영 비전을 반드시 달성해 나갑시다.

**셋째, “직무 전문성 강화”입니다.**

선보가족 누구나 자신의 직무에 있어서 만큼은 ‘내가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직무에 임해야 합니다. 저는 ‘인재가 곧 선보의 미래 경쟁력’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대학원 진학 및 자기계발을 위한 복지수당 지급 등 임직원들의 글로벌 역량 및 자기계발 강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재 육성을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넷째, “가족친화 기업문화의 정착”입니다.**

현재 우리 회사에서 2030 세대는 전체의 40%를 차지할 만큼 갈수록 회사는 젊어지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MZ 문화와 패기를 이해하기 위해,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의 경륜과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상호 노력하는 등 지위 고하를 떠나 상대를 먼저 안을 수 있는 포용력과 배려심을 발휘하여 우리 회사의 고유문화인 ‘가족친화 기업문화’를 더욱 발

전·성숙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고객가치 최우선 실현”입니다.**

현재 조선업계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모기업도 제작 협력사 다변화, 자체 인력 육성 등 원가절감을 위한 자구책 마련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품질, 가격, 납기 등 고객의 신뢰와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영업사원이 되어 ‘고객이 영업을 창출한다’는 우리 회사의 경영방침을 실천하여 고객에게 감동을 선사합니다.

선보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반성해 보고 새로운 각오를 다져서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갑시다. 새해에 가졌던 초심을 열정과 도전으로 승화시켜 성과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한 해가 되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시장환경은 불확실하고 대내외적인 도전은 더욱 심화할 것이지만 선보가족 모두가 합심하여 변화와 혁신을 지속해 나간다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고객에게 더욱 신뢰받는 회사로 거듭날 것입니다.

끝으로 창립기념일을 맞아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시어 수상의 영광을 안으신 수상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올 무더위와 장마에 건강관리 유념하시고 선보가족 모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보 History

# 열정과 헌신으로 빛난 선보Family 37년



창립 초기 남영공업 건물 모습



1995년 PURIFIER UNIT 최초 납품



선보공업 다대공장 전경



**최금식**  
선보Family 회장

## 창립~1999년

### 책상 두 대, 전화기 두 대로 땀을 올린 희망의 여정

1986년 8월은 선보공업의 모태인 남영공업이 마침내 첫발을 내디딘 역사적 순간이었죠. 책상 두 대와 전화기 두 대를 놓고 결방살이로 시작하던 그때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10명도 안 되는 직원들과 동분서주해야 했지만, 우리의 기술력과 가능성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덕에 선박 엔진용 소음기와 여과기, 모듈 유닛, 연료오일 정화시스템을 자체 기술로 개발하고 납품에 성공하며 소중한 땀의 결실을 얻을 수 있었죠.

1996년 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한 선보공업주식회사는 다음 해 현재 위치인 사하구 다대동으로 이전하고, 1998년에는 사내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며 업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선박 기술 강자로 거듭나게 됐어요.

## 2000~2009년

### 우직함으로 돌파한 성장기, 기술·경영·품질 강자로 우뚝 서다

2000년대는 선보가 창업 20주년(2006)을 맞으며 연 매출 600억 원의 중견기업으로 우뚝 선 눈부신 도약기라 할 수 있어요.

2003년 3월에 선보유니텍 구평공장을 설립하며 본격적으로 대형 의장 작업장을 갖춘 선보는 2004년 세계 최대 규모 원유정제 저장운반선(FPSO선)의 핵심공정 유닛화에 성공하며 승승장구해 나가죠. 2006년에는 선보하이텍 영암공장을 설립하고, 부산지역 기업 최초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도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어요. 지속적인 기술 혁신으로 국내 조선 대기업에 탱크 탑 유닛을 납품해 획기적인 공기 절감에도 성공하죠. 빠르게 성장한 선보는 2007년 드디어 '매출액 1천억 원'을 달성하며 조선 기자재 분야 최고를 향해 달려 나갔답니다!

2009년에는 세계적인 기술·품질 자격 인증인 ASME 스탬프를 취득(2009)하고 5천만 불 수출탑을 수상(2009)하며 선보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널리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김상도**  
선보공업 대표이사



2009년 5천만 불 수출탑 수상



기술력을 인정받은 선보 제품



기술력을 인정받은 선보 제품(2)

Special

## '37세 동년배' 선보 Family의 축하 N행시

올해로 37살 생일을 맞은 선보공업을 위해 '37세 동년배' 선보Family가 축하 N행시를 보내왔습니다.

'가족친화기업' 선보는 경조사·기념일 선물 지급 등 선보Family 가정의 평안을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1986년생 직원 4명과 1986년생 배우자들 등 직원 4명이 진심을 담은 감사와 함께 특별한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보내 주신 N행시에는 매일 출근하는 직장을 넘어 '제2의 가족이 있는 곳', '인생의 대부분을 함께할 나의 삶터'를 향한 선보Family의 깊은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선** 보인의 경쟁력은  
**보** 이는 곳이든 안 보이는 곳이든  
**공** 공장소에서든  
**업** 계 최고를 자랑한다.

배상욱 선임 / 전계장생산설계팀 1986년 3월 3일생

**선** 보공업은 친환경 기술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보** 배로 가득찬  
**공** 간에서 나 자신을  
**업** 그레이드하여 더 큰 꿈을 펼쳐봅시다.

김영관 과장 / 총무팀 1986년 6월 10일생

**선** 마설마 했는데  
**보** 통 중소기업 선보공업이  
**공** 사다망(公私多忙)한 기업으로  
**업** 계의 No.1이 된다고 합니다!

정원진 선임 / PM팀 1986년 11월 18일생

**선** 보공업이 조선산업의  
**보** 배가 된 지 어느덧 37주년이 되었습니다.  
**공** 전절후(空前絶後)의 발전을 이루어낸 선보Family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업** (UP) 되는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김수환 선임 / 다대생산1팀 1986년 11월 28일생



최금식 회장 동탑산업훈장 수상(2012)



'PLUS 2020' 선보 미래창조 선언식(2015)



선보공업 월드클래스 300 선정(2018)



김 청 욱  
선보유니텍 대표이사

2010~2019년

‘조선업 불황’ 거친 외풍에도  
신성장동력으로 전화위복 이룬다

2010년대는 세계 경기 불황이 조선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던 때예요. 선보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창립 당시의 열정과 집념으로 돌아가 제3차업과 사업 다각화 플랜을 발표했죠. 장차 신성장동력인 해양플랜트의 메카가 될 선보유니텍 구평1공장도 설립했어요. 2012년에는 최금식 회장이 대통령이 수여하는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며 한국 조선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게 돼요.

꾸준히 대형 프로젝트 수주와 납품에 매진하던 선보는 2015년 전사 중장기 경영전략인 ‘PLUS 2020’을 수립하고 3대 전략방향과 8대 전략과제 실천에 돌입해요. 신규 해양플랜트 프로젝트에도 보란 듯 성공한 선보는 2016년 선보엔젤파트너스를 설립, 스타트업 발굴 및 협업 환경도 새롭게 조성했어요.

2018년에는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 기업으로 선정되고, 2019년에는 H.S.E 경영에 매진하며 선보하이텍 무재해 1500일 달성이라는 의미 있는 기록도 남겼어요.

최 영 찬

선보엔젤파트너스 대표이사

2020년~현재

스마트 선보, 더 넓은 바다 향해  
LET'S GO 2025!

코로나19가 창궐했던 2020년 선보는 비상 대응 체제로 다시금 내실을 다지는 한편, LNG선 연료공급 유닛 등 친환경 산업 비중을 확대해나가기 시작했어요.

특히 2020년에는 ‘LET'S GO 2025’ 중장기전략을 선포하며 SB2025 추진팀을 결성, 전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목표 달성을 다짐했죠. 신성장동력 전진기지인 선보유니텍은 그린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의 대전환을 선포하며 4개 밸류체인과의 미래산업 계획도 발표했어요.

‘가족친화기업’을 지향하는 선보는 20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일&생활 균형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연이어 선정되기도 했어요.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선보유니텍의 ‘국내 최초 300kW급 그린수소 생산 설비 개발’과 선보공업의 ‘동반성장위원회 선정 ESG 우수협력사 최고점 획득’을 꼽을 수 있겠네요!

창립 37주년을 맞은 우리 선보는 다시 미래로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어요. 모두 선보Family의 땀방울과 헌신 덕입니다!



최 흥 렬

선보피스 대표이사



‘LET'S GO 2025’ 중장기 계획 수립 발대식(2020)



선보공업, 고용노동부 주관 '2021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선보유니텍이 개발한 국내 최초 300kW급 그린수소 생산 설비(2023)

- 선 한 눈빛과
- 보 드라운 말투는
- 공 장내 불화를
- 업 애줍니다.

선보 Family  
축하 N행시

이지홍 팀장 / 다대2공장 조립2반 배우자 1986년 1월 3일생

- 선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보 통 이럴 땐 37만 원 주지 않을까? 하고 예상하시죠? 줍니다. 근데
- 공 짜는
- 업 따.

김자영 선임 / 총무팀 배우자 1986년 2월 18일생

- 선 보가 3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 보 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선보의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 유 난히 이번 연도는 시작부터 무더웠지만
- 니 즈를 더욱 만족시키기 위해 힘을 내서, 선보유니텍이
- 텍 사스로 나아가는 그날까지 화이팅!

유시호 선임연구원 / 선보유니텍 부설연구소 배우자 1986년 1월 11일생

- 선 보는 1986년 설립되었습니다.
- 보 다 나은 선박 기술 보유를 통해 멋지게 성장하였으며,
- 피 스라는 제작업체도 설립하였습니다.
- 스 스로 발전해나가는 직원들과 함께 보다 멋진 선보 그룹이 되길 희망합니다.

이기훈 책임 / 선보피스 생산관리팀 배우자 1986년 3월 12일생

## 회사 소식

## 선보Family 창립 37주년 기념식 개최



선보는 37주년 창립기념일(7월 1일)을 맞아 6월 30일 전사 공장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보공업은 오전 10시 50분 본사 교육장에서, 선보유니텍 구평공장은 오후 1시 사내 식당에서 기념식을 열고 선보Family의 노고를 치하했다. 선보유니텍 대불공장과 선보하이텍 영암공장·선보피스는 조례를 겸해 공장장이 기념식을 진행했다.

기념식에는 임원·책임·기원·선임팀장부터 협력사 소장 등 1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해 37주년을 맞은 선보의 성과를 축하했다. 기념식에서는 국민

의례를 시작으로 사가 제창, 윤리강령 제창에 이어 ▲유관기관장상 ▲협력사 우수사원상 ▲우수사원상 ▲모범상 ▲공로상 시상식이 마련됐다.

선보Family 최금식 회장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대내외 업황 및 시장 동향 설명과 함께 조선업계를 선도해나갈 선보의 새로운 비전을 강조했다. 기념사 후에는 선보인 10계명 제창과 케익 커팅, 사가·슬로건 제창을 끝으로 식이 마무리됐다. 선보는 이날 전사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창립기념 특별 선물로 37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증정했다.

## 수상

창립 37주년  
포상 수상자 명단

구분	성명
공로상	▶ 공 업 : 권두철, 정원진 ▶ 유니텍 : 박관호
모범상	▶ 공 업 : 강순호, 권진영, 소상섭, 윤동현, 이우석, 이준희, 이창용, 장상권, 정태욱 ▶ 유니텍 : 김태경, 박춘복, 신명환, 오창배, 차동익 ▶ 하이텍 : 김효희
우수사원상	▶ 공 업 : 강영한, 강현욱, 김소연, 김영호, 노현우, 문재경, 배승용, 정동민, 정현교 ▶ 유니텍 : 김민지, 서찬호, 이호중, 정광진 ▶ 하이텍 : 김혜훈, 박민석
협력사 우수사원상	▶ 공 업 : 구태현(삼진공업), 성민철(다우디앤아이), 이현철(재경공업), 조영록(창선ENG) ▶ 유니텍 : 공대성·오상호(보성), 권혁인·성기욱(천조), 김원길(대성) ▶ 하이텍 : 김동선(현영산업), 김종호(우전), 윤민철(지제이산업), 허승환(태영산업)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역본부상	▶ 공 업 : 김희태, 정효
부산상공회의소상	▶ 공 업 : 강형주, 김종성, 최진희
부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상	▶ 유니텍 : 권운현
부산지방 고용노동청상	▶ 유니텍 : 신용화, 이상훈
사하구청장상	▶ 유니텍 : 전인성, 천병철
감사나눔상	▶ 유니텍 : 남정화, 최성문

## 선보Family

## NO.1 해양·조선·에너지 기업이 되리라 믿습니다

## 공로상 수상자 특별인터뷰

## PM팀 정원진 선임

**Q1. 공로상 수상 소감과 앞으로의 다짐을 말씀해주세요.** 뜻밖에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중국에서 동고동락하며 고생했던 동료분들, 그리고 본사에서 열심히 지원해주신 임직원분들과 이 영광을 나누고 싶습니다. 프로젝트가 아직 진행 중인데, 끝날 때까지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Q2. 선보에서 근무하는 동안 가장 좋았거나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지금 상을 받는 이 순간이 가장 좋습니다.

**Q3.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 선보Family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PM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부족한 점도 많고 어려운 점도 많았는데, 모든 부서 담당자의 적극적인 협조로 중국 고객사에 선보의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과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Q4. 10년 후 선보는 어떤 모습일까요? 바라는 모습이 있다면?** 10년 후 선보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해 더 높은 기술력과 생산력으로 아시아 No.1 해양·조선·에너지 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믿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Q5. 선보는 나에게 ( 여보 )다.**

일과 사랑을 함께 잡아야 할 나이에 일만 잡은 저에게 선보는 여보입니다.



## AS파트 권두철 팀장

**Q1. 공로상 수상 소감과 앞으로의 다짐을 말씀해주세요.** 이 큰 상을 주신 것은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이하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Q2. 선보에서 근무하는 동안 가장 좋았거나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공로상을 수상하는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주어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했지만, 한편으론 항상 회사에 보탬이 되고 있는지 자문하곤 했습니다. 이 상을 받음으로써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Q3.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 선보Family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모두 함께 더 노력해서 선보를 세계 일류 기업으로 만드는 데 힘을 보탬시다.

**Q4. 10년 후 선보는 어떤 모습일까요? 바라는 모습이 있다면?** 선보Family가 모두 함께 노력해서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유일무이한 기업이 됐으면 합니다.

**Q5. 선보는 나에게 ( 여름날의 그늘 같은 존재 )다.**



## 자재지원반 박관호 팀장

**Q1. 공로상 수상 소감과 앞으로의 다짐을 말씀해주세요.** 부족한 제가 공로패를 받게 되어 감사합니다. 최금식 회장님과 이동준 공장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2. 선보에서 근무하는 동안 가장 좋았거나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10월에 열리는 사내 체육대회가 가장 좋습니다. 보직을 변경해 구평1공장으로 출근했을 때도 기억에 남네요.

**Q3.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 선보Family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루 계획을 작성해 미루지 말고, 공법 개선과 원가 절감을 위해 노력하며 주인의식을 생활화합시다.

**Q4. 10년 후 선보는 어떤 모습일까요? 바라는 모습이 있다면?** 모듈 유니트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미래 신사업인 그린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서도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성장했으면 합니다.

**Q5. 선보는 나에게 ( 삶 )이다.**



회사 소식

## 선보엔젤파트너스·라이트하우스 컴바인, 라이트이어와 투자협약 체결



선보엔젤파트너스와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가 6월 28일 네덜란드 태양광 전기자동차 기업인 라이트이어(Lightyear)와 350만 유로(약 5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해운대 센텀스카이비즈 빌딩에서 개최된 부산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라이트이어를 비롯해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들의 IR이 진행됐다. Lex Hoefsloot 라이트이어 최고경영자(CEO)와 Arjo van der Ham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임원진은 투자사를 대상으로 자사의 핵심 기술과 역점 사업, 경영 전반을 소개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기술력과 상용차 디자인을 보유한 라이트이어는 세계 최초로 태양광에서 직접 동력을 얻는 전기차를 생산하며 글로벌 유망 기업의 반열에 오르고 있다. 선보엔젤파트너스가 지난 1월 참여한 세계 최대 IT·가전제품 전시회 'CES 2023'에서 새롭게 발굴한 기업이기도 하다.

앞서 선보엔젤파트너스와 라이트하우스컴바인인베스트는 네덜란드 현장실사를 진행해 라이트이어의 현지 사업 동향을 살폈다. 선보는 협약을 체결하며 부울경 기업들이 주축이 되는 핵심부품 개발 및 조달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전기차 전문 파운드리 공장을 부산에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회사 소식

## 선보공업, 노르쉬핑 선박박람회 참가해 친환경 연료공급시스템 출품



선보공업은 6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오슬로 국제선박박람회(노르 쉬핑·Nor-Shipping) 2023'에 참가해 친환경 연료공급시스템을 선보였다.

노르쉬핑은 2년마다 열리는 세계 4대 조선 및 조선해양기자재 전문 전시회로, 대형 유럽 선주들과 조선소 및 해양플랜트 관계자들이 참가해 해외 조선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혁신 기술을 공유하는 교류의 장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선보공업 김남수 부사장과 김영수 플랜트 설계팀 상무, 이지영 플랜트 영업팀 상무, 윤동현 플랜트 영업팀 선임, 정영훈 기술연구소 주임이 참석해 친환경 선박 시장 흐름과 경쟁사 동향을 파악했다.

박람회 종료 후 김영수 플랜트 설계팀 상무는 "현재 선보의 주력 제품과 미래 먹거리 분야의 영업활동을 어디서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구상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지영 플랜트 영업팀 상무 또한 "시장의 니즈와 경쟁사들은 매우 빨리 움직인다는 것을 체감했으며, 이러한 위기감을 연구소 및 설계 인력들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톱다운 방식의 지시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개발 속도를 높여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교육

## 선보공업·선보유니텍, 6월 아침특강 개최



선보공업과 선보유니텍은 6월 14일과 21일 본사 교육장 및 사내식당에서 아침특강을 개최했다.

'5가지 욕구로 알아보는 자기관리'를 주제로 진행된 선보공업 아침특강은 조직문화·경영 코칭·리더십 특강 경력을 보유한 유나정 강사가 맡았다. 선보유니텍 아침특강은 김시영 강사가 '허그 스피치(스피치 시대에 필요한 맞춤 보이스 트레이닝)'를 주제로 진행했다. 6월 특강을 통해 임직원들은 개인별 주요 스트레스원 진단 및 정서관리 역량 향상 방안, 전달력을 높여주는 스피치 기법 등을 익힐 수 있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KRAS(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를 운영하며 직무스트레스 등 근로자의 작업환경과 작업 형태 및 개인별 건강 상태를 평가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복지

##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선보 Family 취향 저격한 문화행사 관람



선보는 하반기 휴가철을 맞아 임직원 가족들에게 다채로운 나들이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행사 관람을 지원했다.

선보는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페루와의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VIP관람권 추첨 진행 외에도 ▲제29회 드림콘서트 ▲조영남 50주년 기념 신곡발표회 ▲국립부산과학관 특별기획전 '로봇별 에디' ▲을숙도문화회관 6월 공연 등의 티켓을 지원했다. 관람 기회를 얻은 선보Family들은 자녀, 배우자, 부모님 등 가족들과 함께 문화행사를 즐기며 모처럼 특별하고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 특히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임직원 가족들의 취향을 고려해 지원 범위를 선정한 선보의 배려가 돋보였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 회사 소식

## ‘제기차기로 의기투합’ 제4회 한마음대회 성료



조직문화팀이 주최하는 선보Family 대표 소통 행사인 한마음대회가 6월 26일부터 이틀간 선보공업과 선보유니텍 스마트라운지에서 열렸다.

5월 종목이었던 단식 탁구대회에 이어 4회 차 한마음대회에서는 팀별 제기차기 대전이 마련됐다. 부서별로 선수 3명을 한 팀으로 꾸렸으며 선보공업에서는 8팀, 선보유니텍에서는 4팀이 참가했다. 경기 규칙은 팀별로 모든 선수가 한 번씩 제기를 찬 후 성공 개수를 합산해 가장 많은 개수를 차올린 팀이 승리하는 방식이었다. 제기를 떨어뜨리면 곧바로 다음 선수에게 차례가 넘어가고, 공중에서 잡는 것은 한 번만 허용됐다. 선수 1인당 경기 제한시간은 1분이었으며, 현장에 있는 선보Family들이 함께 성공 개수를 셸다. 모든 선수에게 참가 기회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아 고도의 집중력과 컨디션 관리가 필수였다.

짧지만 박진감 넘치는 승부가 이어진 후 우승은 선보공업 설계팀과 선보유니텍 설계5팀이 차지했다. 설계팀을 압도적 1위로 이끈 최우호 책임은 단독으로 49개를 차올리며 놀라운 성적을 기록했다. 1등 팀에게는 부서비 5만 원씩이 부상으로 지급됐다.

## 회사 소식

## 성과는 나누고 어려움은 함께 지는 ‘팀장소통 워크숍’ 개최



조직문화팀은 부서 간 애로사항의 신속한 개선과 활발한 소통 문화 정착을 위해 ‘팀장소통 워크숍’을 주최했다.

6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사 교육장에서 하루 일정으로 진행된 워크숍에는 선보공업과 선보유니텍 팀장 29명이 참여했다. 팀장들은 우선 부서별로 시스템(절차) 변경을 통해 업무 개선이 기대되는 사안을 제안한 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을 진행했다. 평상시 업무 연락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을 제외하고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발굴해 자체적으로 해결해보자는 것이 주요 취지였다.

앞서 조직문화팀은 6월 22일까지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안건을 사전 취합한 후 26일까지 답변을 정리, 워크숍 현장 토론 전날인 27일까지 이를 종합해 공유하도록 했다. 워크숍 종료 후 팀장들은 별도로 마련된 저녁식사 자리에서 부서별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 회사 소식

## 6월 커뮤니케이션 데이 진행



부서 간 장벽 해소 및 업무 효율 증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데이가 6월 29일 저녁 본사 교육장에서 열렸다.

5월 품질경영부에 이어 6월 커뮤니케이션 데이는 영업1팀과 플랜트영업팀이 맡아 이끌었다. 각 팀은 팀장 주도로 부서 소개 발표 PT를 진행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오는 7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열릴 커뮤니케이션 데이는 설계담당 부서가 진행할 예정이다.

## 선보Family

## 우리 동호회가 궁금해? - 같이해볼링 동호회

생활 스포츠로 인기를 끌던 볼링은 한때 시장 트렌드 변화에 따라 인기 하락세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볼링을 클럽 음악 또는 가벼운 음주 네트워킹 문화와 결합한 락 볼링장, 볼링 펍 등이 속속 생기며 다시금 대중 스포츠로 자리매김했다. 볼링은 운동보다는 게임 같은 매력이 있으며, 경쟁하고 때론 협력하며 동료들과 스포츠 에티켓을 쌓아나갈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올해 5월 갓 신설된 선보 같이해볼링 동호회도 정기모임을 활발히 가지며 실력 향상에 한창 몰두하고 있다.

### 1. 같이해볼링 동호회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볼링 동호회는 올해 새롭게 개업한 선보유니텍 대불공장 임직원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 결성됐습니다. 현재 운영진 포함 1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둘째 주에 월 1회 정기모임을 열고 있습니다.

### 2. 동호회의 특징점이나 자랑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면?

회원이 아닌 선보Family도 가볍게 일회성 참가가 가능하고,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 특징점이라 생각합니다.

### 3. 동호회 활동을 하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동호회 활동이 처음이고 볼링도 해본 적이 없어, 잘하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 반면 실력은 다른 분들에 비해 부족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참여 횟수가 늘어날수록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 점수로 바로 나타나서 뿌듯합니다.



### 4. 현재 선보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복지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해본 사례가 있는지? 또 향후 어떤 지원이 확대됐으면 하는지?

복지수당을 지원받아 회원들에게 손목 보호대를 지급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 5. 앞으로 확대해가고 싶은 활동 분야가 있는지?

볼링뿐 아니라 회원들이 원한다면 다른 종목도 다양하게 도전해볼 계획입니다.

### 6.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동호회 운영이 처음이다 보니, 운영이 다소 서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고 더욱 발전하는 동호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7. 마지막으로 최종 어필 타임입니다. “이런 사람”이면 누구나 환영한다!”

볼링 경험이 없어 실력이 부족하다 해도, ‘해보고 싶다’는 마음만 있다면 선보Family 누구나 환영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주세요. 환영합니다!

인터뷰=같이해볼링 동호회 총무 고한희 사원(선보유니텍 대불공장 생산관리팀)

## 복지 선보Family 복지제도 개선안 시행, 사내 협력사 대상 지원범위 대폭 확대

선보가 선보Family 복지제도 개선안을 수립해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했다.

5개 직영 법인과 사내외 협력사의 임직원 본인 및 가족 복지제도가 일부 개선·확대됐다. 아래 소개된 내용 외 전체 복지규정은 업데이트된 「SUNBO Family 복지규정」을 참조하면 된다.

<b>▶ 질병에 의한 입원·수술비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금</b>	
- 직영 법인	
임직원 본인	연 200만 원 ⇒ 연 300만 원
배우자 및 자녀	연 100만 원 ⇒ 연 200만 원
<b>▶ 자녀 입학 축하금</b>	
- 직영 법인	
고등	100만 원 ⇒ 150만 원
- 사내협력사(신설)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함	
고등	100만 원
대학	200만 원(전문대·4년제 동일)
<b>▶ 자녀 대학 등록금</b>	
- 사내협력사(신설)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함	
학기당 100만 원(전문대·4년제 동일)	
<b>▶ 하계 유급휴가</b>	
- 직영 법인 2일 ⇒ 3일	
<b>▶ 경조금</b>	
- 직영 법인	
둘째 출산	50만 원 ⇒ 100만 원
- 사내협력사 *근무 2년 이상 → 1년 이상	
본인 결혼	30만 원&화환 ⇒ 50만 원&화환
자녀 결혼	20만 원&화환 ⇒ 30만 원&화환
본인 사망	300만 원&근조화 ⇒ 500만 원&근조화
배우자 사망	100만 원&근조화 ⇒ 300만 원&근조화
자녀 사망	50만 원&근조화 ⇒ 100만 원&근조화
본인 부모 사망	30만 원&근조화 ⇒ 50만 원&근조화
배우자 부모 사망	30만 원&근조화 ⇒ 50만 원&근조화
조부모 사망	10만 원&근조화 ⇒ 30만 원&근조화
첫째 출산	10만 원 ⇒ 30만 원
둘째 출산	30만 원 ⇒ 50만 원
- 사외협력사(신설)	
본인 결혼	30만 원&화환
자녀 결혼	20만 원&화환
본인 사망	50만 원&근조화

배우자 사망	50만 원&근조화
자녀 사망	50만 원&근조화
본인 부모 사망	30만 원&근조화
배우자 부모 사망	30만 원&근조화
*1년 이상 거래협력사에 적용 *1년 미만은 화환&근조화만 지급	
<b>▶ 동호회 활동</b>	
- 사내협력사(신설)	
활동비	연간 10만 원(도급비에 반영)
<b>▶ 장기근속자 포상</b>	
- 사내협력사(신설)	
5년 30만 원 / 10년 50만 원 / 15년 100만 원 / 20년 150만 원 / 25년 200만 원 / 30년 250만 원	
<b>▶ 개인기념일 선물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함</b>	
- 사내협력사(신설)	
본인 생일 커피 쿠폰 5만 원 / 입사기념일 문화상품권 5만 원 / 배우자 생일 케익 쿠폰 5만 원	
<b>▶ 퇴임 기념선물</b>	
- 사내협력사(신설)	
10년 이상 15년 미만	행운의 열쇠(금 1돈)
15년 이상	행운의 열쇠(금 3돈)
<b>▶ 콘도 이용</b>	
- 사내협력사(신설)	
7개 콘도·리조트 회원권 제공 / 파라스파라·송도 힐스테이트	
<b>▶ 재난구호자금</b>	
- 직영 법인 지원대상	본인 및 부모 ⇒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부모
- 사내협력사(신설)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함	
본인 및 부모 사망	500만 원
본인 및 부모 중상	150만 원
주택 전파 500만 원 / 반파 250만 원 / 침수 50만 원	
<b>▶ 복지수당</b>	
- 직영 법인	
연 100만 원 한도 ⇒ 단, 중도 입사자는 월할 계산	
6개월 이상 근무자 ⇒ 3개월 이상 근무자	

## 안전 선보공업, 부산조선기자재조합 특화 소방안전교육 참여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이하 부산조선기자재조합)은 6월 22일 사하소방서에서 조선해양기자재 산업 특화 소방안전교육을 시행했다.

선보공업에서는 김상도 대표이사를 비롯해 6명의 임직원이 참석해 화재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익혔다. 오전 10시부터 점심까지 진행된 안전교육은 ▲부산소방본부 홍보영상 시청 ▲공장화재 저감 대책 교육 ▲화재감지기 오작동 사례 교육 ▲재난안전시설 및 장비 사용법 안내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등으로 채워졌다.

이번 교육은 선보공업이 사하소방서에 전달한 기부금으로 설립한 교육센터에 부산조선기자재조합 대표들을 초청해 진행한 것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 안전 6월 전 공장 안전지원제 실시



선보는 6월 7일 전 공장 안전지원제를 실시했다.

임직원들은 공장 정면을 향해 정성스럽게 상을 차리고 창립 37주년을 맞은 선보의 더 큰 도약과 발전을 다짐하고, 다가온 여름철 선보Family의 안전과 무사고를 기원했다. 올해는 정부가 시행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원년으로, 고용노동부는 7월 첫째 주에 시행하던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을 확대 개편해 7월을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